



# KC NEWSLETTER

No. 53

## 2014 시무식 및 FMM

### Challenge & Innovation



2014년 1월 2일 KC코트렐 본사 지하 강당과 KCMS 복지동에서 2014년을 알리는 시무식과 함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서동영 총괄 부사장은 이번 시무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회복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KC코트렐이 Challenge와 Innovation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첫 FMM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2014년 첫 FMM에서는 지난 해 KC코트렐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 보며 201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동영 총괄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와 함께 관점의 변화, 지식의 활용, 문제의 공유를 통한 혁신을 이룩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약식 및 창립 1주년 기념식 참석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최광철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등이 17일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환경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SK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7곳, KC코트렐, 포스벨, 부강테크 등 중견,중소 환경 기업 45곳 등 52개 기업과 환경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날은 한국환경산업협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와 병행 되었다. KC코트렐에서는 박기서 부사장이 참석했다.



## 사내 첫 자선 바자회 개최



2013년 12월 27일 본사 지하 강당에서 첫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바자회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의류, 신발, 도서 등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 총 4백여 점으로 본사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처음 실시하는 바자회임에도 많은 임직원들이 소중한 물품을 아낌없이 기부하여 성공리에 바자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기부 받은 물품은 사내 임직원들에게 재판매 되었으며, 수익금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성모보호작업장에 기증될 예정이며, 판매되지 않은 기증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였다. 금번 바자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을 개최해 사내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KCMS 삼척화력 집진판 테스트

KCMS에 설치되어 있는 TEST TOWER에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하여 2014년 1월 13일 완료 예정으로 삼척화력 집진판 TES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화력에 납품될 집진판은 STANDARD DOUBLE BAFFLE 간격 524mm보다 326mm가 더 넓은 850mm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E 수량이 적어지면서 이에 따른 고효율 집진설비에 관련된 최 적의 조건을 확인 하고자 8가지 TEST항목을 설정하여 TEST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LCIN 창립 5주년 행사



12월 7일 그루가온 베스트 웨스턴 리조트에서 LCIN 직원 및 가족들이 모여 창립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태준 법인장은 지난 5년간 LCIN의 직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창립 5주년을 축하하였다. 이태준 법인장의 기념사 이 후에는 지난 5년간 LCIN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업무 능력 향상과 회사 이익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기념 주화를 수여하였으며, PMP트레이닝 센터로부터 심영섭 부사장, 이태준 법인장, 정택인 선임, 한덕영 선임이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후, 직원들의 장기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으며, LCIN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단체 활동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모든 단체 활동들마다 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였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직원들은 다 함께 춤을 추며, 이 날의 아쉬움을 달랬다. 5주년 기념 행사는 지난 5년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LCIN이 이룩한 성장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CIN은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했던 5주년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더 큰 성공과 함께 더 큰 즐거움이 함께 할 LCIN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본다.





“Every father  
should remember that one day  
his son will follow his example  
instead of his advice”

